3부 일반적인 지침

죄 죽이기 7편 먼저 나무를 바꿔라 · 신자만 할 수 있고, 전체 순종 없이는 안 된다

3부 7장(93~108쪽), 8장(109~115쪽)

> ❓ **안 믿는 친구도 의지로 나쁜 습관 잘 끊던데, 그거랑 뭐가 달라? 그리고 나는 왜 이 죄 하나를 못 이기지?**

🧭 흐름 한눈에

오웬은 특정한 죄를 죽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기 전에 두 개의 토대부터 세운다. 첫째 토대는 이것이다. 죄를 죽이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성령은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사람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죄 죽이기는 오직 신자만 할 수 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첫 과제는 가지를 치는 일이 아니라 나무 자체가 바뀌는 회심이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회개를 놓치고, 자기 의로 굳어지거나 끝내 절망한다. 둘째 토대는 나무가 바뀐 신자에게 해당한다. 신자라도 나를 괴롭히는 죄 하나만 골라 싸우고 하나님과의 동행 전체를 버려두면, 그 하나도 이길 수 없다. 그런 싸움은 죄가 아니라 괴로움을 미워하는 것이다. 게다가 그 욕망은 흔히 느슨해진 동행의 결과이거나 하나님의 징계이다. 그래서 길은 '먼저 나무, 그리고 온몸'이다.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고, 그분 안에서 삶 전체로 순종하는 것이다.

- **지침 카드**

📜 절별 정리

📜 1. 방법보다 출발점이 먼저다 (7장)

오웬은 이제부터 우리 영혼을 흔드는 특정한 욕망을 죽이는 방법과 수단을 다루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앞에 먼저 깔려 있어야 할 원리가 있다. 오웬은 이것을 '일반적인 지침'이라고 부른다. 그의 주장은 강하다. 죄를 아무리 깊이 깨닫고 아무리 단단히 결심해도, 이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결코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심의 크기가 아니라 출발점이 바른가이다. 이 편의 두 지침이 바로 그 출발점이다.

1. 구체적 방법 앞에 토대가 되는 원리가 있다
2. 깨달음과 결심만으로는 죄가 죽지 않는다
3. 결심의 크기보다 출발점이 승패를 가른다

> **★로마서 8:13**
> 책 전체의 토대. “영으로써” 죽인다는 말에 방법보다 주체와 능력이 먼저라는 원리가 담겨 있다

📜 2. 첫째 지침: 오직 신자만 죄를 죽인다 (7장)

오웬은 그리스도께 참으로 접붙여진 신자가 아니면 단 하나의 죄도 죽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한 가지를 분명히 구분한다. 자기가 신자인 줄 '느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근거는 성경이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느냐에 있다. 로마서 8:13의 “너희”는 8:1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한 사람들이다. 골로새서 3:5의 명령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오웬은 반대쪽 예도 든다. 세네카나 에픽테토스 같은 철학자들은 자기를 이기라고 열심히 가르쳤지만, 오웬은 그것이 이정표에 그린 태양처럼 빛도 열기도 없었다고 평가한다. 행위를 의지하는 서약과 고행도 같은 이유로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

1. 실제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사람만 가능하다
2.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속함'이 기준이다
3. 성경의 명령은 살아난 신자들에게 주어졌다
4. 철학자의 절제는 그림 속 태양과 같다

★로마서 8:13

죄 죽이기의 주체가 “너희”, 곧 신자임을 보인다

로마서 8:1

그 “너희”가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임을 밝힌다

>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골로새서 3:5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명령 자체

골로새서 3:1-4

명령을 받는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임을 보인다

> 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 위의 것을 생각하고
>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4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로마서 9:31-32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한 시도는 이르지 못한다

> 31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 어찌 그러하냐
>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칠 돌에
> 부딪쳤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는 죄의 죽음도 없다.”

📜 3. 의무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7장)

그렇다면 불신자는 죄를 죽일 의무가 없는가? 오웬은 율법과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그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다. 다만 그것은 내 힘으로 알아서 하라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하라는 의무이다. 오웬은 종의 비유를 든다. 주인이 "가서 돈을 받아 오고, 그 돈으로 값을 치르라"고 했는데 종이 돈 받는 단계를 건너뛴다면, 값을 치렀더라도 주인의 지시를 따른 것이 아니다. 죄를 죽이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시다. 그러니 성령이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이 죄를 죽이려는 것은 눈 없이 보고 혀 없이 말하려는 것보다 어렵다. 로마서 8장의 흐름이 이를 보여 준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상태를 벗어나는 길은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계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을 우리 안에서도 하신다.

1. 모두의 의무이지만 방식은 정해져 있다
2. 종의 비유: 앞 단계를 건너뛰면 불순종
3. 죄를 죽이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시다
4. 성령 없이 죽이기는 눈 없이 보기와 같다

> **로마서 8:8**
>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출발점
>
>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 **로마서 8:9**
>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
>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 **로마서 8:10**
> 성령이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고 영은 의 때문에 산다
>
>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 **로마서 8:11**

>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 4. 먼저 나무를 바꿔라 (7장)

말씀에 찔리거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죄를 깨닫고, 그 욕망과 온 힘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 싸우면 불을 끄기는커녕 불에 삼켜진다. 성령은 연단하는 불처럼 찌꺼기를 걸러내신다. 하지만 그 연단은 본바탕이 금과 은일 때만 효과가 있다. 놋과 철은 아무리 풀무질해도 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지금 할 일은 이 욕망 저 욕망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회심이다. 마음이 찔린 무리에게 베드로는 교만부터 고치라고 하지 않고 회개하라고 했다. 세례 요한은 뿌리에 놓인 도끼를 전했다. 주님은 나무를 좋게 해야 열매가 좋다고 하셨다.

1. 그리스도 없는 싸움은 불에 삼켜진다
2. 연단은 본바탕이 금·은일 때만 통한다
3. 불신자의 첫 과제는 회심이다
4. 가지치기가 아니라 나무를 바꿔야 한다

> **말라기 3:2-3**
> 하나님의 정화는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잿물 같다
>
> 2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3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 **예레미야 6:28-30**
> 놋과 철은 아무리 연단해도 '버린 은'이 된다

28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29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30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사도행전 2:37-38

찔린 이들에게 먼저 회개를 요구한 사도의 순서

37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마태복음 3:10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였다. 문제는 뿌리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7:16-18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16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12:33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를 좋게 하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 5. 순서를 뒤집은 싸움의 세 가지 해악 (7장)

첫째 해악은 정작 해야 할 회개를 놓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 죄 하나와 씨름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상태 전체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부르심이다. 그런데 사람은 그 죄와 맞붙어 싸우다가, 깨달은 죄를 해결하려고 주어진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는다. 둘째 해악은 자기 의로 굳어지는 것이다. 죄와 싸운다는 사실이 양심을 달래 주니 "나는 괜찮다"고 결론 내린다. 이것은 병을 깨닫고도 영혼의 의사이신 그리스도 대신 다른 치료자를 찾은 에브라임과 같다. 셋째 해악은 절망이다. 세월이 흘러 죄가 죽지 않았고 다른 죄로 옮겨 갔을 뿐임을 보면, 쌓아 온 둑이 무너지듯 손을 놓고 죄에 항복한다. 오웬의 결론은 이것이다. 죄 죽이기는 살아 있는 사람의 일이고 믿음의 일이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이다.

1. 죄의 깨달음은 하나님께 오라는 부르심
2. 죄 하나와 씨름은 회개의 회피가 된다
3. 싸운다는 사실로 안심하면 자기 의가 된다
4. 한 죄 끊고 다른 죄로 옮겨갈 뿐이다
5. 자기 힘의 둑은 결국 무너져 절망한다

> **호세아 7:12**
> 하나님이 그물을 치셔서 도망칠 수 없게 하신다
>
>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 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 **호세아 7:16**
> 돌아오기는 하나 높으신 이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
>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앗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로마서 10:3

자기 의를 세우려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5:9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22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함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 6. 반론: 그러면 불신자는 죄를 내버려 두라는 말인가 (7장)

예상되는 반론은 이것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죄와 싸우지 말라고 하면 세상이 방탕해지지 않겠는가? 오웬은 이렇게 답한다. 하나님은 섭리로 여러 수단을 쓰셔서 사람의 부패가 폭주하지 못하게 막으신다. 말씀도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양심을 찔러 죄를 어느 정도 억제한다. 그러나 그 억제는 아직 뿌리를 죽이는 죄 죽이기가 아니다. 오웬은 “싸우지 말라”가 아니라 “먼저 회심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집 전체가 타는데 벽의 구멍부터 메우는 사람에게 “불부터 끄라”고 말하는 이를 원수로 여겨서는 안 된다. 온몸을 갉아먹는 폐병을 두고 아픈 손가락부터 싸매서도 안 된다.

따라가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라는 것이다. 죄 하나만 가둬 두면 그 사람은 언제든 다른 죄로 터져 나온다.

1. 하나님은 섭리로 죄의 폭주를 막으신다
2. 겉의 억제와 뿌리의 죽음은 다르다
3. '싸우지 마라'가 아니라 '먼저 회심하라'
4. 불타는 집: 전체 문제부터 다뤄야 한다
5. 설교는 죄의 뿌리까지 따라가야 한다

> **마태복음 3:10**
> 설교자는 뿌리에 도끼를 대야 한다(앞 절 인용을 다시 적용)
>
>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 **고린도후서 4:6**
> (암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참된 해결이라는 장의 마무리
>
>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 7. 둘째 지침: 죄가 아니라 괴로움을 미워하면 진다 (8장)

이제 오웬은 나무가 바뀐 신자에게로 눈을 돌린다. 그가 그리는 사람은 이렇다. 한 욕망이 평안을 빼앗자 그는 그 욕망과 싸우고, 기도하고, 탄식한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 묵상은 소홀히 하고, 자기를 괴롭히지 않는 다른 죄에는 관심이 없다. 이사야 58장의 이스라엘도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금식했지만, 다른 의무를 버렸기에 그 열심은 거부되었다. 오웬은 이유를 짚는다. 그런 싸움은 죄 자체가 아니라 괴로움을 미워하는 것, 곧 자기애에서 나온다. 참된 동기는 죄 그 자체를 미워하고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데 있다. 내버려 둔 다른 죄들도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셔야 했던 죄이다. 오웬은 날카롭게 묻는다. 그

1. 한 죄만 붙들고 동행 전체를 버리면 진다
2. 편식한 열심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3. 괴로움만 미워하는 싸움은 자기애다
4. 내버려 둔 죄도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다
5. 참된 동기는 죄 자체를 미워함과 십자가

이사야 58:2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듯한 겉의 열심

>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사야 58:5-7

그 금식이 거부된 이유: 다른 의무를 버림

> 5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 같이 숙이고 굵은 베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6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고린도후서 7:1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라

>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에베소서 4:30

(암시, 오웬이 장절을 밝히지 않음)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는 모든 것을 경계하라는

>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순종에 있다.”

📜 8. 경계를 놓으면 욕망이 길을 내고, 하나님은 그것을 징계로 쓰신다 (8장)

한 욕망이 날뛰는 것은 흔히 하나님과의 동행 전체가 미지근해진 결과이다. 오웬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욕망의 성질이다. 아무리 훌륭한 성도 안에도 내재하는 죄가 남아 있다. 성경은 이 죄가 유혹하고 싸우고 사로잡는다고 말한다. 마음을 부지런히 지키는 동안 욕망은 시들지만, 경계를 늦추면 출구를 찾아 생각과 감정을 장악하고 행동으로 터져 나온다. 한번 길이 나면 그 닦인 길로 되풀이해 흐른다. 둘째는 하나님의 다루심이다. 하나님은 다른 악을 막거나 고치시려고 자녀를 괴로운 죄의 싸움 속에 두기도 하신다. 바울의 가시는 교만을 막았고, 베드로의 부인은 그의 장담을 꺾었다. 그렇다면 원인인 영혼의 상태는 그대로 두고 결과인 그 욕망만 없앨 수는 없다.

1. 가장 좋은 성도 안에도 욕망은 남아 있다
2. 마음을 지키면 욕망은 시든다
3. 경계를 놓으면 욕망이 출구를 뚫는다
4. 한번 난 길은 반복되는 습관이 된다
5. 원인은 두고 결과만 없앨 수는 없다

> **잠언 4:23**
> (암시)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무엇보다 지키라
>
>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 **야고보서 1:14**

베드로전서 2:11

(암시) 육체의 정욕이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로마서 7:23

(암시) 지체 속 다른 법이 싸워 사로잡는다

고린도후서 12:7

자만하지 않도록 주신 '육체의 가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26:33-35, 26:69-75

(암시) 베드로의 장담과 부인, 곧 허세가 꺾인 사건

마태복음 26:33-35 33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35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마태복음 26:69-75 69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아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70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71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72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3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아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4]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

📜 9. 먼저 나무, 그리고 온몸 (7·8장)

두 지침은 한 줄로 이어진다. 먼저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나무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바뀐 나무는 가지 하나가 아니라 온몸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죄 죽이기는 이를 악물고 버티는 고행도, 넘어질 때마다 자신을 때리는 자책도 아니다. 오웬이 7장 끝에서 강조하듯 그것은 믿음의 일이고, 믿음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 8장의 전체 순종도 체크리스트를 늘리라는 말이 아니다. 괴로움 해소에만 매달리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전체로 낮아지라는 초대이다.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죄 죽이기도 열매를 맺는다.

1. 순서: 먼저 나무, 그다음 열매
2. 범위: 가지 하나가 아니라 온몸
3. 죄 죽이기는 고행도 자책도 아니다
4.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볼 때 성령이 일하신다
5. 전체 순종은 하나님 앞에 전체로 낮아짐

> **마태복음 7:17-18**
>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순서의 원리
>
> [17]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 **사도행전 15:9**
>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믿음: 방식의 원리
>
>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 **고린도후서 7:1**
>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범위의 원리
>
>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 **★로마서 8:13**
> “영으로써” 죽이면 산다: 능력의 원리

- **착각과 진짜 비교판**

이것은 죄 죽이기가 아니다	이것이 죄 죽이기다
거듭나지 않은 채 의지와 결심으로 습관을 고치는 도덕적 개선	먼저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나무가 바뀌는 데서 시작하는 싸움 (마태복음 7:17-18) **마태복음 7:17-18** 17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30일 서약'으로 한 죄를 묶어 두기	성령을 의지해 그리스도께 나아가 뿌리를 다루기
“싸우고 있으니 나는 괜찮다”는 안심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에서 양심의 평안을 찾기
나를 괴롭히는 죄 하나만 미워하고 나머지는 방치	죄 자체를 미워하고 모든 면에서 순종하려는 마음(고린도후서 7:1) **고린도후서 7:1**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기도·말씀은 놓은 채 그 죄와 씨름만 하기	하나님과의 동행 전체를 회복하는 것을 싸움의 일부로 삼기

성령께서 뿌리를 죽이시는 일은 아니다.

신자의 '왜 이 죄 하나를 못 이기지?'에 대한 오웬의 답은 이것이다. 그 하나만 보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죄 죽이기
내 안에 남은 죄의 뿌리를 성령 안에서 날마다 약하게 만들어 끝내 이기는 일.

내재하는 죄
거듭난 신자 안에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남아 계속 죄로 끌어당기는 성향.

정욕(욕망)
하나님을 거슬러 무언가를 끈질기게 원하며 행동으로 몰아가는 마음의 움직임.

육신
성령 없이 타고난 본성 그대로인 사람의 상태, 또는 신자 안에 남아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의 성향.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안에 거하시며 생명과 힘을 주시는 일.

양심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알려 주는 마음의 법정.

죄책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 정죄받아야 할 처지.

거듭남(회심)
성령께서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돌이켜 새 생명을 주시는 일로, 죄 죽이기의 출발점.

내 노력과 행실을 하나님 앞에 설 근거로 내세우는 태도.

전체적 순종

골라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모든 악을 경계하고 모든 의무를 행하려는 순종.

💬 청년의 삶으로

✅ 이 편의 결론

- 죄를 죽이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성령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안에 계시므로, 죄 죽이기는 신자의 일이다.
-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첫걸음은 가지치기가 아니라 나무가 바뀌는 회심,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 신자라도 괴로운 죄 하나만 붙들고 동행 전체를 버려두면 그 하나도 이길 수 없다.
- 길은 '먼저 나무, 그리고 온몸'이다.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고, 그분 안에서 삶 전체로 순종한다.
- 이것은 고행이나 자책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는 일이다.

📚 이 편의 장별 정리 노트

- 죄 죽이기 · 7장 죄를 죽이기 위한 일반적인 지침들 (1)
- 죄 죽이기 · 8장 죄를 죽이기 위한 일반적인 지침들 (2)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오웬 『죄 죽이기』(CH북스, 박문재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 전문 텍스트판과 서재 정리본은 pdf.quritan.com 에 있습니다.